

3 OECD, '핵심 원자재 수출 규제 인벤토리 보고서 2026' 발표

⇒ OECD는 세계 각국의 핵심 원자재(Critical Raw Material) 수출 제한 조치 현황을 모니터링해 주요 트렌드와 함의를 분석한 연례 보고서*를 발표('26.4)

* OECD Inventory of Export Restrictions on Critical Raw Materials 2026

※ 인벤토리 보고서는 OECD가 핵심 원자재 등 특정 주제에 대한 회원국 현황과 정책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·분석해 발간하는 통계·정책 보고서 시리즈로, '26년 핵심 원자재 보고서는 관련 데이터 집계기 시작된 '09년부터 '24년까지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성

- **(개요)** 전 세계 핵심 원자재 수출 제한 조치의 도입 추이, 유형, 범위 등에 대한 데이터를 제공하고 주요 추세와 시사점을 포착해 제시
 - 수출 제한 조치와 그 영향에 대한 중요한 증거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공급망 안정 방안 마련 등 정책 대응을 지원
- **(주요 통계 및 함의)** 전 세계적으로 핵심 원자재에 대한 수출 제한 조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그 결과 글로벌 공급망의 불확실성이 고조
 - **(수출 제한 조치 증가 추세)** '24년 세계 각국의 수출 제한 조치는 1만 7,300여 건으로 '09년 초(약 3,600건) 대비 5배 가량 증가
 - 전년 대비 증가율은 0.6%로, '22~'23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배경으로 원자재·에너지 가격이 급등하고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3.4% 급증한 이후 최근 증가세가 둔화되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 중
 - **(수출 제한 국가 다양화)** '09~'24년에 도입된 수출 제한 조치의 절반 이상이 인도(18.5%), 중국(16.6%), 아르헨티나(5.6%), 베트남(5.1%), 브루나이(4.4%) 등 5개국에서 발생
 - '24년 새로운 수출 제한 조치 중 대부분은 미얀마(21.7%), 시에라리온(14.2%), 나이지리아(12.8%), 앙골라(6.4%), 카자흐스탄(5.5%) 등 아프리카와 중앙아시아 자원 부국들에 집중되면서 수출 제한이 지리적으로 다양화되는 경향이 포착
 - **(전략적 핵심 원자재에 대한 수출 제한 집중)** 코발트, 망간, 흑연, 희토류 등 제조업과 에너지 전환에 중요한 원자재들이 수출 제한 조치의 주요 표적
 - **(글로벌 무역 시장 영향)** '22~'24년 사이 전 세계 핵심 원자재 무역량 중 약 16%가 최소 한 가지 이상의 수출 제한 조치에 노출
 - 품목별로 코발트와 망간은 각각 수출량의 67%, 66%가 최소 하나 이상의 수출 제한 조치를 받았고, 흑연(47%), 희토류 원소(45%), 주석(41%) 등에 대해서도 높은 수준의 수출 제한 조치가 관측

- '24년 최소 한 가지 이상 수출 제한을 받는 핵심 원자재 수입 비중이 높은 국가는 영국(22.7%), 한국(21.8%), 일본(18.4%) 등으로 글로벌 평균(16%)을 상회
- '24년에 수출 제한 조치가 10% 이상 급증한 품목은 탄탈륨, 리튬, 주석, 망간, 니켈, 코발트, 바나듐, 니오븀 등
- **(가장 강력한 수출 제한 조치 증가)** 수출 제한 조치의 주요 유형으로는 '24년에도 여전히 수출세(50개국 이상 채택)와 허가제(30개국 이상)가 주를 이루었고, 수출 금지(10개국 미만)와 같은 강력한 조치를 도입한 국가들은 적은 편
- 다만 '10년대 후반부터 수출 금지 조치가 점차 보편화되면서 '24년에는 새로 도입된 조치의 약 4분의 1이 이에 해당
 - ※ '24년 새로 도입된 수출 제한 조치들의 유형별 비중은 허가제(38%), 수출세(25%), 수출 금지(24%), 쿼터제(12%) 순
- **(세수 확보 및 산업 정책적 동기가 작용)** '10년대 초반 이후 수출 제한 조치 도입 목적은 세수 창출과 더불어 국내 공급 확보, 추가 가공 및 부가가치 창출 촉진, 지역 다운스트림 산업 보호 등과 같은 산업 정책적 목표에 집중
- '24년에는 특히 세수 창출 목적이 급증한 반면('23년 약 30% → '24년 약 50%), 산업 정책적 목적(30% 이상 → 20% 미만)은 감소
- **(대응 조치)** 일부 국가에 집중된 핵심 원자재 공급 능력과 수출 제한 조치로 경제 안보 위협에 대한 인식이 확산하고 대응 노력도 본격화되는 양상
 - 코발트, 리튬, 니켈은 상위 3개국이 글로벌 생산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며 희토류는 그 비중이 90%에 육박
 - 핵심 원자재 주요 수입국인 선진국들은 수출 제한 조치를 경제 및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인식하고 이에 대응해 새로운 정책 이니셔티브를 추진
 - 이러한 정책적 조치에는 광업 다양화, 원자재 가공, 재활용 기술 등에 대한 투자 확대나 핵심 원자재 산업에서 공정한 경쟁 환경 보장을 위한 정책 등이 포함

출처 : OECD (2026.4.28.)

https://www.oecd.org/content/dam/oecd/en/publications/reports/2026/04/oecd-inventory-of-export-restrictions-on-critical-raw-materials-2026_2cedac0b/d5ca8f62-en.pdf
<https://www.oecd.org/en/about/news/press-releases/2026/04/critical-raw-materials-face-rising-export-restrictions-increasing-risks-to-global-supply-chains.html>